

■ 현장 / 세월호 참사 6개월…진도 팽목항

10명…기약 없는 기다림 “우리도 유가족 되고 싶다”

4월16일 세월호가 침몰한 지 6개월이 지났다. 진도 팽목항과 진도군 실내체육관을 가득 메웠던 봉사자들도 하나 둘 진도를 떠났다. 조계종 재난구호봉사본부를 비롯해 가톨릭과 원불교 등 일부 종교계만 실종자 가족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있을 뿐이다. 지난 7월18일 294번째 희생자가 수습된 이후 실종자 숫자 10명은 아직까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가족들의 기약 없는 기다림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17일 실종자 귀환을 기원하는 ‘기다림 버스’를 타고 진도를 찾았다.

어둠이 내려앉은 진도는 한산하다 못해 적막했다. 참사 초기 밤 디딤틈 없었던 진도군실내체육관은 시신을 수습한 가족들이 하나 둘 떠나면서 이제는 7가족 밖에 남지 않았다. 나머지 2가족은 진도 팽목항에서 가족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기다림 버스를 타고 진도를 찾은 이들은 50여명. 조계종 총무원조합 조합원 10여명을 비롯해 서울과 인천, 충북에서 달려 온 50여 명이 이날 체육관을 찾았다. “어서오세요. 고맙습니다.” 제 한 몸 추스를 힘조차 없는 실종자 가족들은 자신들을 위해 먼 길을 달려 온 방문객들을 반갑게 맞았다. 살아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도, 가족을 잃은 슬픔도, 국가에 대한 분노도 모두 다 토해 낸 그들이 기댈 곳은 점점 줄어들었다. 매주 기다림 버스 참가자들과 함께 하는 간담회는 그 자체로 가족들에게 큰 힘이 됐다.

“갈수록 진도를 찾는 발길이 줄어 들고 있는 상황에서 기다림 버스를

타고 오시는 많은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힘을 주시니 힘을 잃지 않고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단원고 2학년 고 김동영 군의 아버지 김재만 씨의 말이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진도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씨는 실종자 가족들을 위해 진도로 내려왔다. 실종자 가족들에게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위해서다. 김재만 씨는 “세월호 참사 수습이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다. 하루하루 전쟁 같다. 말로만 해결해 준다고 해놓고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하루 빨리 실종자들이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체육관을 찾은 기다림 버스 참가자들은 실종자들의 귀환을 기원하며 풍등을 만들고 편지지를 채워나갔다. 편지를 쓰는 동안 눈물을 흘리는 이들의 모습 눈에 띄었다. 실종자 및 희생자 가족들과의 짧은 만남을 뒤로 하고 참가자들은 팽목항으로 발길을 돌렸다. 팽목항을 찾은 참가자들은 꽃다운 이들을 집어 삼킨 바다를 향해 간절한 기도를 올렸다. 준비한 풍등도 밤하늘로 날려 보냈다.

“조은화 님, 허다운 님, 남현철 님, 박영인 님, 황지현 님, 양승진 님, 고창석 님, 권재근 님, 권혁규 님, 이영숙 님. 어서 돌아오소서.” 참가자들은 바다를 향해 실종자들의 이름을 외치며 귀환을 기원했다. 이어 총무원조합 참가자들은 팽목항 법당을 찾아 세월호 기도문을 올렸다. 세월호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실종자들의 귀환을 기원하는 발원이었다. 성

만제 결사추진본부 행정관은 “세월호의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 총무원조합 차원에서 기다림 버스를 타고 진도를 찾게 됐다”며 “말이 아닌 행동으로 함께 하겠다. 이번 기다림 버스가 세월호 문제 해결을 위해 힘차게 각오를 다지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많은 이들의 간절함 바람에도 불구하고 수색은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겨울이 다가오면서 ‘수색이 중단되지 않을까’, ‘행여 가족들이 못 돌아오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도 커지고 있다. 실종자 가족들은 “시신이나마 수습한 유가족들이 부럽다”고 털어놓았다. 동생 권재근 씨와 조카 권혁규 군을 기다리는 권오복 씨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4월16일 이후 한번도 진도를 떠나지 않았다. 권오복 씨는 “답답하기만 하다. 하루 빨리 실종자 가족이 아닌 유가족이 되는 게 소원”이라며 “기약없이 체육관에 있는 것 자체가 가장 힘들다. 실종자들이 돌아올 때까지 국민들도 한 마음으로 기다려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한웅 기다림 버스 운영위원장은 “세월호 참사 6개월이 지나면서 기다림 버스로 진도를 찾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다”며 “실종자 가족이 남아 있는 한 끝까지 기다림 버스를 운행하며 가족들에게 힘이 돼 줄 것”이라고 밝혔다. 진도의 밤은 깊어갔지만 끝날 줄 모르는 기다림은 이날도 이어지고 있었다.

진도=염태규 기자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지난 20일 서울 노들장애인야학을 방문해 야학 운영지원을 위해 자비나눔 기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신재호 기자 air501@ibulgyo.com

장애인들과 약속 지킨 총무원장 스님

노들장애인야학 방문
‘자비나눔 기금’ 전달
매달 공양미 후원도 약속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장애인 교육기관인 서울 노들장애인야학을 방문하겠다는 아름다운 약속을 실천했다. 이와 함께 노들야학 운영지원을 위해 자비나눔 기금 500만 원을 전달하고 장애인들의 급식 지원도 약속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20일 노들장애인야학을 방문해 박경석 대표와 환담을 나눴다. 이날 방문에는 조계종 사회부장 정문스님,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보경스님, 아름다운동행 사무총장 자공스님 등이 함께 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의 방문은 지난 9월17일 조계사에서 열린 ‘빈곤문제 해소’를 위한 2014년

시민조청 무차대회’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무차대회 당시 총무원장 스님은 노들장애인야학 음악팀의 공연을 관람한 뒤, 박경석 대표에게 학교 방문을 약속한 바 있으며, 이날 10월 자비나눔 방문으로 노들야학을 찾으며 무차대회에서 한 약속을 실천했다.

1993년 문을 연 노들야학은 장애를 이유로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한 이들을 위해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등을 비롯해 인문학 강좌와 예체능을 교육하고 있으며,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박경석 노들야학 대표는 “(총무원장 스님께서) 직접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며 “장애인 250만명 가운데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하는 이들은 45%밖에 되지 않는다.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을 위해

검정고시 과정과 문해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무차대회에서 노들야학 음악팀의 공연을 보며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당시 박경석 대표님께 야학방문을 약속했었는데 어려운 여건에서도 학교를 잘 운영하고 계신 것 같다”고 밝혔다.

또 총무원장 스님은 노들야학 학생들의 급식 지원을 위해 매월 조계사를 통해 쌀 1가마를 후원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자비나눔 기금 500이 사회에서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을 만을 학교 운영기금으로 지원했다. 이어 노들야학 시설을 둘러 본 총무원장 스님은 노들야학 음악팀과 만나 학생들을 격려한 뒤,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좋은 음악으로 많은 이들에게 위안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염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신나게 뛰놀며 불심 키워

‘수도권 어린이포교 활성화’
제4회 천진불 어울림 한마당

서울경기지역 어린이 불자들이 운동회를 통해 체력을 키우고 친목을 다졌다. 조계종 직할교구는 지난 18일 동국대 대운동장에서 수도권 어린이포교 활성화를 위한 제4회 천진불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했다.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수도권 사찰의 어린이들을 결집시켜 어린이법회의 색을 띄우고 사찰 간 정보교류의 기회를 갖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서울 조계사, 봉은사, 도선사, 국제선전터, 경기 화성 용유사 김포 용화사 등 어린이법회 시행사찰 30여

곳 700여 명의 유치원 및 초등학교생 불자들과 지도교사들이 참석했다. 특히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도 자리를 함께 해 눈길을 끌었다. 총무원장 스님은 아이들에게 불교 교리를 주제로 즉석퀴즈를 내고 상품을 수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천진불 어울림 한마당은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체육대회(단체줄넘기, 협동 공 튀기기)를 비롯해 사찰별 장기자랑, 사찰음식 체험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대학생들의 공간인 캠퍼스는 아이들의 무대가 됐다. 학업 스트레스를 내려놓은

어린이들은 오랜만에 신나게 뛰놀며 마음속의 불심(佛心)을 한껏 키워 나갔다.

모든 경기를 마친 뒤엔 조계종 총무원장상(화계사)과 포교원장상(도선사), 어린이청소년위원장상(법안정사),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장상(육전원) 등 다양한 상과 상품이 수여됐다. 직할교구 사무처장 정만스님(총무원 총무부장)은 “천진불 어울림 한마당은 어린이포교 활성화 차원에서 마련된 교계 유일의 어린이를 위한 운동회”라고 밝혔다.

장영섭 기자 fuel@ibulgyo.com



세월호가 침몰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실종자 가족들의 기다림은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17일 세월호 실종자 및 유가족들과 기다림 버스 참가자들의 간담회.

2015년도 종단 장학승 선발 공고

종단에서는 전법교화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국내 또는 해외의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의 석·박사 과정에 재학하거나, 진학하고자 하는 스님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2015년도 종단 장학승'을 선발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불기2558(2014)년 10월 20일

조계종 승가교육진흥위원장·총무원장 자 승
장학위원회 위원장 보 광

■ 선발개요

- 1) 선발 대상
 - 국내 장학승 : 국내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의 석·박사 과정에 진학희망 및 재학 중인 승려 (종립대학 및 일반대학 대학원 석·박사 과정)
 - 해외 장학승 : 해외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의 석·박사 과정에 진학희망 및 재학 중인 승려 (일본, 중국, 인도·동남아, 미국, 유럽 등 전지역)
- 2) 자격요건 : 구족계를 수지한 승려로 종헌·종법 및 제 규정에 걸림사유가 없는 자
- 3) 선발 인원 및 전공분야
 - ※ 종단의 교육, 연구의 제반에 중 취약한 분야(계율, 한국불교사, 불교윤리학)를 우선 선발함
 -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구분	국내·외 일반대학원 장학승	사찰승가대학원 장학승
선발 분야	가. 불교학 • 초기불교 ○명 • 선불교 ○명	가. 율학 ○명
	나. 불교사 • 한국불교사(근·현대) ○명 • 중국불교사 ○명	나. 선학 ○명
	다. 불교문화 • 불교문화(문화·예술·건축·군덴츠) ○명	다. 한문불전 ○명
	라. 응용불교학 • 불교윤리학(생명·생태) ○명 • 불교사회학, 비교종교학, 철학일반, 불교심리학, 사회복지정책 중 ○명	라. 종국유식 ○명
	마. 언어학 • 불전언어(팔리어, 범어, 티벳어, 중국어) ○명 • 일반언어 ○명	바. 논명, 화엄 ○명
	바. 기타 전공(불교학 이외) • 문화 ○명 • 예술 ○명 • 철학 ○명 • 법학 ○명 • 의학 ○명 • 기타 ○명	

- 4) 장학금 지급내용
 - ① 선발된 장학승에 대해서는 해당 과정(석사 또는 박사) 수료시까지 장학금을 지급함
 - ② 장학금은 등록금 및 연구비 등을 포함하여 책정함

■ 제출서류

- 국내·외 장학승
 - ① 신청서(소정양식)
 - ② 수학기회서(자기소개서 포함)

- ③ 수행이력서(종단양식)
- ④ 재학증명서(진학예정자는 입학 허가서 제출)
- ⑤ 학부와 대학원의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재학생의 경우 신청시점까지의 성적증명서)
- ⑥ 서약서(소정양식)
- ⑦ 추천서(지도교수 1인의 추천서)
- ⑧ 재정보증서(은사스님)

- 사찰승가대학원 장학승
 - ① 신청서(소정양식)
 - ② 연구계획서(자기소개서 포함)
 - ③ 수행이력서(종단양식)
 - ④ 재학증명서(진학예정자는 입학 허가서 제출)
 - ⑤ 서약서(소정양식)
 - ⑥ 교육기관장의 추천서
 - ⑦ 재정보증서(은사스님)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장학승 선발에 필요한 제출 양식은 아래에서 다운받아 제출하십시오.
※ 서식 다운로드 :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 → 공지사항(공지번호: 2528) → 장학승 선발 시행 공고

■ 장학승 의무사항

- 1) 결과보고
 - ① 과정 수료 후 3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 1부 및 학위수료증 사본 1부 제출
 - ② 학위 취득 후 3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 1부, 취득학위증 사본 1부, 논문 2부(외국어 논문인 경우 한글 요약서 첨부) 제출
- 2) 소임 의무
 - 장학승은 해당 학위 취득 후 '장학금지급및관리에관한령'에 의해 종단이 지정하는 곳(중앙총무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사찰 등)에서 수혜기간 만료의 소임을 수행하여야 함.

■ 접수기간 _ 2014년 10월 27일(월) ~ 11월 10일(월)

■ 결과발표 _ 2014년 12월 중(조계종 홈페이지 및 개별통지)

■ 접수처 _ 대한불교조계종 장학위원회 (교육원)
우)110-170 서울 종로구 견지동 45번지
E-mail : baraboki1014@buddhism.or.kr
전화 : 02)2011-1818, 팩스 : 02)732-4926